

자유학기제의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흥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종단연구

곽윤정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A Longitudinal Study on The Influences of Free Semester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Interest in Classes

Yun Jung Kwak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jo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참여가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흥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효과가 종단적으로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대도시에 거주 중인 중학생으로서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실험집단 451명과 자유학기제에 미참여한 통제집단 466명으로 자유학기제가 종료된 이후 매 년 3차년도까지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학교생활만족감의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 경향은 2차년도까지 지속되었지만 3차년도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 흥미 중 주지교과 수업의 분석 결과, 3년 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예체능 수업 흥미에 대한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이 미 시행집단 보다 1차년도, 2차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3차년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지속적 효과를 위하여 단기적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participation in the free semester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interest in classes and whether the effect persisted longitudinally. The participants were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located in large cities: 451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466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Only the stude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free semester. The data were collected at the end of the free semester for three year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until the second year but not in the third year.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interest in the main subject class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until the third year. Third, students' interest in art and sports class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until the second year but not in the third yea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ong-term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rather than short-term introduction is required for the continuous effects of the free semester.

Keywords : Free Semester, Logitudinal Study, School Life Satisfaction, Academic Classes Interest, Art Classes Interest

*Corresponding Author : Yun Jung Kwak(Sejong Cyber Univ.)

email: flow2003@naver.com

Received March 12, 2021

Accepted April 2, 2021

Revised April 1, 2021

Published April 30, 2021

1. 서론

21세기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하고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의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1]. 또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와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수업방식을 강요한다는 범사회적 우려가 팽배하게 형성되었으며[2], 입시와 시험 위주의 수업,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학교는 교육적 기능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과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학업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13].

자유학기제는 불안정한 시기인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 개발을 위한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3],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꿈과 끼를 탐색하고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운영되었다[4][13].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어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자유학기제의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5], 진로성숙의 효과 연구[4][6],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운영만족도 연구[16] 등이 있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이전에 비해 학교생활과 인간관계가 개선되었으며[17], 학습동기와 흥미가 생기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개선되었고[7],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능력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13]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당해 년도에 실시된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실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4][6]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지속적인 변화 및 성과의 지속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14].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지향점이 학생의 역량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의 제공을 통해 학교생활 및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흥미를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에 대한 흥미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와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성장과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근거가 됨으로써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전체 교육과

정 중 유의미한 정책으로서 볼 수 있게 된다[14][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집단과 미시행한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횡단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자유학기제에 의해 학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3차년도에 걸쳐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의 궁극적 목적인 학교생활의 만족감과 수업에 대한 흥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는지 밝혀봄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효과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은 미시행집단보다 학교생활만족감의 효과가 종단적으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은 미시행집단보다 수업에 대한 흥미의 효과가 종단적으로 나타나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도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 중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인 실험대상은 451명이고, 자유학기제 미시행된 학교의 학생인 통제집단은 466명이다. 자료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에 의한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인 자유학기제 학교를 선정한 후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학교 규모 및 학생 수 등이 유사한 학교를 선정하는 짝표집(paired sampling)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 대한 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 년 1학기가 종료될 무렵 1회씩 3년 동안 실시하였다.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3년 동안 실시하면서 전학, 결석 등의 이유로 일부 학생과 불성실한 응답자 등 일부는 누락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lassification		1st	2nd	3rd
Treatment group (Free Semester)	Male	243	238	230
	Female	235	226	221
	overall	478	464	451
Control group (Non-free Semester)	Male	244	239	234
	Female	237	231	232
	Overall	481	470	466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생활의 만족감과 교사, 학생들 간의 긍정적 관계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의 실태조사 문항, 학교생활만족감 문항[16]과 수업흥미 문항[18]을 활용하였다. 학생의 실태조사 문항은 성별, 학업성취도, 사회경제적 배경, 자기주도학습시간 등을 파악하는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성취도와 사회경제적 배경은 상, 중, 하로 평가하며, 자기주도학습시간은 일 평균 학습시간을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학교생활 만족감 문항은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정서적 만족감 등을 측정하며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흥미 문항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에 대한 흥미와 예술, 체육 등의 예체능 관련 교과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높은 점수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교생활 만족감의 Cronbach α 는 .90, 수업흥미 문항의 Cronbach α 는 .87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 반복측정 혼합모형(Repeated measure mixed model),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3개의 시점별로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에 대한 흥미가 자유학기 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 집단의 연차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혼합모형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 혼합모형은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유사하지만, 모형에서의 잔차를 개인 간 분산과 개인 내 분산으로 구분하여 임의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별, 학업성취도, 사회경제적 배경, 자기주도학습시간이라는 학생 특성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에 대한 흥미의 변화 양상을 파악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학교생활만족감

학교생활만족감의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인 실험 집단과 미시행 집단인 통제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행 집단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3.77, p<.001$). 이와 같은 경향은 2차년도에도 이어져 나타났으나($t=5.00, p<.001$) 자유학기제 시행 2년이 지난 3차년도조사에서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의 평균이 3.76, 미시행 집단의 평균이 3.68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혼합모형 분석 결과를 반복측정 혼합모형(Repeated measure mixed model)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 반복측정 혼합모형과 학생변인을 공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 모두에서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가 학교생활만족감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의 경우, $b=.14, p<.01$). 1차년도와 대비한 시간효과와 경험, 자유학기제 경험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1-2차년도 또는 1-3차년도 사이의 학교생활만족감의 변화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차년도 $b=.05, p>.05$, 1-3차년도 $b=-.07, p>.05$). 이는 해당 기간 중 학교생활 만족감의 변화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실험집단과 미경험한 통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표 2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실험집단의 학교생활만족감 평균점수가 미경험한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였지만, 3차년도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차년도까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가 컸으나 3차년도에는 실험집단의 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Table 2. Longitudinal Result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Treatment group (Free Semester)		Control group (Non-free Semester)		Independent sample t-test	
variables	year	M	SD	M	SD	t	p
School life Satisfaction	1st	3.92	0.84	3.77	0.86	3.77	<.001
	2nd	3.91	0.81	3.70	0.89	5.00	<.001
	3rd	3.76	0.88	3.68	0.90	1.74	.08

Table 3. Result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using the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fixed effect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Repeated measure ANOVA		
	b	s.e.	p	b	s.e.	p
treatment effect	0.15	0.04	<.01	0.14	0.04	<.01
time effect(1-2)	-0.06	0.03	0.07	-0.01	0.04	0.82
time effect(1-3)	-0.09	0.03	<.05	-0.05	0.04	0.21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2)	0.05	0.05	0.28	0.05	0.05	0.35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3)	-0.08	0.05	0.10	-0.07	0.05	0.18
gender				-0.15	0.03	<.01
academic achievement				0.10	0.01	<.01
social economic status				-0.02	0.02	0.42
self-directed learning time				0.01	0.00	<.01
invariable number	3.77	0.03	126.74	3.40	0.06	0.00
random effect	est.	s.e.	%	est.	s.e.	%
variance between students	0.27	0.02		0.24	0.02	
residual	0.48	0.01		0.47	0.01	

3.2 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에 대한 흥미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지교과목과 관련한 주지 교과 흥미와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예체능 과목과 관련한 예체능 교과 흥미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주지 교과 흥미의 경우, 총 3개년도 동안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실험집단과 미시행한 통제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예체능 교과 흥미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실험집단이 미시행한 통제집단보다 1차년도($t=5.20, p<.01$), 2차년도($t=2.02,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3차년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3차년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지 교과 흥미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실험집단의 평균이 3.22, 미시행한 통제집단의 평균이 3.20으로 두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예체능 교과 흥미의 3차년도 결과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3.78, 통제집단의 평균은 3.79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혼합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반복측정 혼합모형과 학생변인을 통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모형 모두에서 자유학기제의 시행 여부가 주지교과 흥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와 대비한 시간효과의 경우에도 자유학기제 경험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1-2차년도 또는 1-3차년도 사이의 주지교과 흥미의 변화에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기간 중 주지교과에 대한 수업 흥미의 변화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인 실험집단과 미시행 집단인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두 집단의 평균 점수에서 변화의 추이를 보면 2차년도까지 비슷한 양상으로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는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5).

주지교과 수업흥미에 있어서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예체능교과 흥미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처치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예체능교과 수업에 대한 흥미가 일관되게 높았다.

Table 4. Longitudinal Results of groups on Classes Interest

variables	year	Treatment group (Free Semester)		Control group (Non-free Semester)		Independent sample t-test	
		M	SD	M	SD	t	s.e.
academic classes interest	1st	3.35	0.90	3.31	0.87	1.15	.25
	2nd	3.44	0.78	3.37	0.78	1.76	.07
	3rd	3.22	0.97	3.20	0.90	.35	.73
art classes interest	1st	3.91	0.89	3.68	0.92	5.20	<.01
	2nd	4.10	0.86	4.02	0.89	-2.02	<.05
	3rd	3.78	0.95	3.79	0.94	.19	.85

Table 5. Results on Academic Classes Interests using the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fixed effect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Repeated measure ANOVA		
	b	s.e.	p	b	s.e.	p
treatment effect	0.05	0.04	0.23	0.04	0.04	0.30
time effect(1-2)	0.06	0.03	0.06	0.17	0.03	<.01
time effect(1-3)	-0.11	0.03	<.01	0.01	0.03	0.87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2)	0.02	0.05	0.69	0.02	0.05	0.60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3)	-0.03	0.05	0.49	-0.04	0.05	0.35
gender				-0.12	0.03	<.01
academic achievement				0.24	0.01	<.01
social economic status				0.04	0.02	<.05
self-directed learning time				0.02	0.00	<.01
invariable number	3.31	0.03	0.00	2.33	0.06	0.00
random effect	est.	s.e.	%	est.	s.e.	%
variance between students	0.30	0.02		0.20	0.01	
residual	0.45	0.01		0.42	0.01	

예체능 교과 흥미에 대한 혼합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반복측정 혼합모형과 학생 변인을 공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 모두에서 자유학기제의 시행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22, p<.01$).

1차년도에 대비한 시간 효과의 경우에도 자유학기제 경험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1-2차년도 또는 1-3차년도 사이의 예체능 교과 흥미의 변화에 있어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차년도 $b=-.16, p<.01$, 1-3차년도 $b=-.24, p<.01$).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의 예체능 교과 흥미의 변화가 미시행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자유학기제 1차년도에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의 예체능 교과 흥미 평균 점수가 미시행 집단보다 높았으며, 2차년도에는 두 집단의 점수가 모두 증가하였

으나 미시행 집단의 증가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년도에는 두 집단의 점수가 감소하였는데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이 미시행 집단보다 감소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예체능교과 수업흥미의 경우 1차년까지의 평균 증가폭은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이 미시행집단보다 컸고, 1차년과 2차년 사이의 평균 증가폭은 미시행집단이 시행집단보다 컸으나, 2차년까지 시행집단의 평균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차년과 3차년 사이에는 평균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은 시행 집단이 더 커서 결국 3차년에 시행집단과 미시행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예체능교과와 교과 외 활동 수업에 대한 흥미는 1차년 대비 2차년 혹은 3차년에 최종적으로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다.

Table 6. Results on Art Classes Interests using the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fixed effect	Repeated measure mixed model			Repeated measure ANOVA		
	b	s.e.	p	b	s.e.	p
treatment effect	0.23	0.04	<.01	0.22	0.05	<.01
time effect(1-2)	0.34	0.03	<.01	0.37	0.03	<.01
time effect(1-3)	0.11	0.03	<.01	0.14	0.04	<.01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2)	-0.15	0.05	<.01	-0.16	0.05	<.01
treatment*time interaction effect(1-3)	-0.24	0.05	<.01	-0.24	0.05	<.01
gender				-0.14	0.04	<.01
academic achievement				0.04	0.01	<.05
social economic status				0.00	0.02	0.97
self-directed learning time				0.01	0.00	<.01
invariable number	3.68	0.03	0.00	3.56	0.07	0.00
random effect	est.	s.e.	%	est.	s.e.	%
variance between students	0.35	0.02		0.34	0.02	
residual	0.47	0.01		0.47	0.01	

예체능교과와 교과외 활동 수업 흥미에 대한 처치×시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체능교과 수업 흥미의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1차년 대비 2차년에는 다소 증가하였고, 다시 3차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후 대비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1차년 대비 3차년 예체능교과 수업 흥미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에서는 감소량이, 자유학기제 미시행 집단에서는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과외 활동에 대한 흥미 또한 모두 1차년 대비 2차년에서 증가하고, 3차년에서 감소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차년 대비 3차년 변화 즉, 감소분은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한 반복측정 분산분석모형 모두에서 자유학기제의 시행 여부가 주지교과 흥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교과에 대한 수업 흥미의 혼합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반복측정 혼합모형과 학생변인을 통 1차년도와 대비한 시간효과와 경우에도 자유학기제 경험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1-2차년도 또는 1-3차년도 사이의 주지교과 흥미의 변화에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기간 중 주지교과에 대한 수업 흥미의 변화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인 실험집단과 미시행 집단인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두 집단의 평균 점수에서 변화의 추이를 보면 2차년도까지 비슷한 양상으로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는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5).

주지교과 수업흥미에 있어서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예체능교과 흥미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처치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예체능교과 수업에 대한 흥미가 일관되게 높았다.

예체능 교과 흥미에 대한 혼합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반복측정 혼합모형과 학생 변인을 공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 모두에서 자유학기제의 시행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22, p<.01$). 1차년도에 대비한 시간 효과의 경우에도 자유학기제 경험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1-2차년도 또는 1-3차년도 사이의 예체능 교과 흥미의 변화에 있어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차년도 $b=-.16, p<.01$, 1-3차년도 $b=-.24, p<.01$).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의 예체능 교과 흥미의 변화가 미시행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방

향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자유학기제 1차년도에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의 예체능 교과 흥미 평균 점수가 미시행 집단보다 높았으며, 2차년도에는 두 집단의 점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미시행 집단의 증가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년도에는 두 집단의 점수가 감소하였는데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이 미시행 집단보다 감소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예체능교과 수업흥미의 경우 1차년까지의 평균 증가폭은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이 미시행집단보다 컸고, 1차년과 2차년 사이의 평균 증가폭은 미시행집단이 시행집단보다 컸으나, 2차년까지 시행집단의 평균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차년과 3차년 사이에는 평균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은 시행 집단이 더 커서 결국 3차년에 시행집단과 미시행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한편, 자유학기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주지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흥미는 1차년 대비 3차년에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예체능교과와 교과 외 활동 수업에 대한 흥미는 1차년 대비 2차년 혹은 3차년에 최종적으로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다.

예체능교과와 교과외 활동 수업 흥미에 대한 처치×시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체능교과 수업 흥미의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1차년 대비 2차년에는 다소 증가하였고, 다시 3차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후 대비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1차년 대비 3차년 예체능교과 수업 흥미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에서는 감소량이, 자유학기제 미시행 집단에서는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과외 활동에 대한 흥미 또한 모두 1차년 대비 2차년에서 증가하고, 3차년에서 감소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차년 대비 3차년 변화 즉, 감소분은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유학기제의 경험이 학교생활 만족감과 수업에의 흥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만족감의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인 실험집단의 점수가 미시행 집단인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

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77, p<.001$). 이와 같은 경향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직후인 1차년도와 2차년도에도 이어졌으나($t=5.00, p<.001$), 3차년도조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혼합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자유학기제를 경험 여부가 학교생활만족감의 연차별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이 미시행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1차년도 대비한 시간 효과의 경우에는 2차년도, 3차년도까지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결국 자유학기제의 시행 직후인 1차년도에는 학교생활만족감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유학기제 활동 참여가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1]을 비롯하여 학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8],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9]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유학기제 시행 직후 측정했을 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부담과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과 참여적 수업, 진로 탐색 등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경험은 과거와 달리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만족감에 대한 효과의 지속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이후 2학년, 3학년에는 성취지향적 수업과 평가 등이 반영된 기존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자유학기제의 경험과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다. 즉,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시기가 되면 개별학습, 결과 지향적 평가가 강조되면서 자유학기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6][10]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나 진로 선택에 대한 중앙감의 영향으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가 중고등학교 전반에 체화되고 연계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종료되면 다시 입시에 편중된 수업이나 주지교육에 집중되면서 학교생활만족감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주지 교과에 대한 흥미의 경우 3개 년도 동안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실험집단과 미시행한 통제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혼합모형 분석결과에서도 자유학기제 시행 집단과 미시행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특징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참여와 활동중심의 교수학습방법, 시험에서 탈피한 과정중심의 평가[11]에 있으며, 진로탐

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을 강화한 제도[9]로서 주지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교육과정의 운영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주지교과는 시험과목으로 인식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과목으로 이해하면서 주지교과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셋째, 예체능 교과 흥미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실험집단이 미시행한 통제집단보다 1차년도($t=5.20, p<.01$), 2차년도($t=2.02,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3차년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혼합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보이고 있는데, 2차년도까지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의 평균이 미시행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에 시행집단의 평균이 미시행집단에 비해 훨씬 더 감소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자유학기제 수업 후 기대수준이 지속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즐거움과 기대수준이 높아져서[15][19] 자유학기제가 종료된 이후 학년부터는 예체능 교과 수업 운영이 상대적으로 비교됨으로써 수업에 대한 흥미가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즐거움과 만족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입시제도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감과 부담감이 공존하게 된다[12]. 즉, 평가나 시험에 부담이 없는 자유학기제 시행 당시에는 만족도가 높으나 자유학기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부담과 입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자유학기제가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효과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학생을 위한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과 호응으로 자유학년제로 확장되었지만,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높인다는 교육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B. Le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Free Semester Activities on Empathy Abi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Vol. 22, No. 4, pp. 119-133, 2018.
- [2] Y. S. Park, S. H. Byu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317-331, 2016.
- [3] S. K. Un, "A Study on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Youth Activitie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Lev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6, pp. 611-617, 2020.
- [4] S. Y. Kim, J. M. Ra, "The effect of Free Semester Satisfaction on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 10, No. 1, pp. 131-152, 2020.
DOI: <http://dx.doi.org/10.34226/gci.2020.10.1.131>
- [5] C. G. Shin, E. H. Hwang, E. Y. Kim, "An analytical study on the operation and actual state of the free-semester program",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3, No. 3, pp. 27-55, 2015.
DOI: <http://dx.doi.org/10.18230/tive.2018.26.4.225>
- [6] S. K. Cho, M. J. Kim, G. A. Park, J. E. Suh, B. M. Lee, D. Y. Jung, "Policy effect analysis of free-semester program: Focusing on school factor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6, No. 4, pp. 41-68, 2018.
- [7] J. Y. Kim, "A Study on changes to students' Academic Records according to their satisfaction with the Free Semester system before and after its implementation (2015-2017)",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8, pp.293-316, 2018.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8.293>
- [8] S. Y. Park,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Longitudinal Changes in the Curriculum Management of Research School on Free Semester", *Asia-pacific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10,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imahs.2017.10.45>
- [9] Y. D. Jeong, Y. I. Yoon, K. T. Lee, "A Study of school life satisfaction through 'free semester curriculum'", *The Journal of Education Assignment Institute*, Vol. 21, No. 1, 2015.
- [10] H. J. Kim, I. J. Choi, H. J. Shin, "The impact of free-semester on youth career development: A comparison of two middle schools in Daegu, South Korea",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Vol. 9, No. 2, pp.45-64, 2016.
- [11] H. Y. Cho, "A Study on Analysis and Suggestions on Research related with Free Semester Syste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8, No. 3, 2017.
DOI: <http://dx.doi.org/10.22143/HSS21.8.3.20>
- [12] J. H. Ha, M. H. Kim, Y. A. Cho, S. H. Kim,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middle-school students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Vol. 42, pp. 139-162, 2018.
- [13] Ministry of Educati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5.
- [14] E. Y. Kim, "Mid- and Long-term Approach to Development of the Free-semester Progra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6.
- [15] H. J. Yang, W. S. Choi, E. Y. Kim, E. H. Hwang, D. H. Suh, H. J. Im, "A longitudinal study of Free Semest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7.
- [16] S. D. Choi, S. E. Lee, "Free Semester System Satisfaction Resul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5.
- [17] S. D. Choi, "Free Semester System Case Stud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4.
- [18] M. Y. Song, "The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 Analyzing PISA 2012 Results and Establishing PISA 2015 Field Tria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3.
- [19] J. Y. Nam, Y. B. Kim, K. H. Park, D. C. Jung, H. J. Park, Y. W. Kim, "KEDI Survey Research on Student Competencie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strum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5.

곽 윤 정(Yun Jung Kwak)

[정회원]



- 1997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6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사이버교육, 상담심리